6월 부산에 부는 '호국불교' 바람

부산 및 경남 불교계, 호국영령 추모 행사 잇달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계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 위령재 및 나라사랑 호국음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진여원에서 봉행한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모습.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안보 사상을 고취할 뿐 아니라 호국 영령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린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19년 동안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열고 보훈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15일도 진여원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 북구 화명3동 제3근린공원 추모비 앞에서 '제19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9시 위령재가 시작되며, 이후 11시에는 보훈가족 위안 행사가 열린다. 위안 행사는 금당 차 문화회원들의 육법공양, 참가 내빈 스님들과 보훈기관 인사들의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으로 이어진다. 또 53사단 장병들의 조총 발사가 군악대의 진혼곡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훈가족을 위해 진여원은 상이용사 유가족에게 장학금과 공로자 표창도 진행한다.

한편 화명신도시 추모공원에 세워진 추모비는 진여원이 지난 2002년 주도해 제막한 것으로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목숨을 잃은 부산 출신 호국영령 428위를 모셨다. 호국영령 위령재는 1997년부터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제7회 호국의 숨결대회(부제 : 청소년 호국 문화예술 전국대회)를 6월 6일 낮 12시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개최한다. 개회식에 앞서 홍법사는 오전 10시 제2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며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호국의 숨결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서예 부분으로 나눠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대상은 전국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일반부다.

진여원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등

홍법사 제7회 호국의 숨결대회

해인사 김영환 장군 호국추모재

달전사·견불사 나라사랑 행사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한국전쟁 당시 해인사 폭격 명령을 거부하며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故 김영환 장군(1921~1954)을 기리는 호국추모재를 봉행한다. 호국추모재는 6월 10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다.

추모재에는 합천군수를 비롯해 노병균 공군교육사령관, 최영훈 공군역사기록단장, 공군 관계자들과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환 장군은 1951년 8월 17일~9월 18일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때 해인사 폭격을 중지시킨 결단으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보존토록 했다. 이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해인사는 2002년 6월 17일 해인사 경내에 '김영환장군 공적비'를 건립했다. 이어 해인사 대중들과 유가족 및 공군당국의 노력으로 2010년 8월 21일 금관문화훈장을 추서됐다.

경남 함안 달전사(주지 원명)는 6월 6일 오전 9시 경내서 6.25전쟁 격전지 전몰군인과 경찰,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11회 순국선열 · 호국영령 위한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한다. 행사는 국태민안과 지역발전을 기원하고 법요식, 화관무, 바라춤, 살풀이 등으로 진행됐다. 함안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가운데 하나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곳이다. 가장 치열한 전투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는 '제20회 6 · 25군경 추모음악회'를 6월 3일 오후 2시 경내 특설무대서 개최한다. 견불사는 6 · 25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알려진 지리산에 위치한다. 견불사에 따르면 당시 지리산에서 전사한 수가 7300명에 이른다. 이곳에서 전사한 호국영령을 위해 견불사는 1997년부터 추모 법회 및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1부 추모제는 개회선언과 내빈소개, 추도사, 추념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지며 2부 나라사랑 호국음악회에는 함양군 더사랑여성합창단, 계현순(전 국립음악원 무용단예술감독)의 관음무, 퓨전 국악그룹 풍류 등이 출연한다.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육을 위해 체험행사로 나라사랑 목걸이 만들기, 전투식량 맛보기, 사진전 등도 마련된다.

하성미 기자

부산 영산재, 전통문화공연서 시연

10개 공연 중 불교문화 유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7년 상반기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에 부산 영산재가 5월 20일 소개됐다.〈사진〉

전통민속놀이한마당은 부산 용두산 야외광장 및 종각 앞 상설무대에서 5월 20일~10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통문화를 일반인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장이다. 매주 사물놀이패, 다대포후리소리, 부산농악 등 전통문화 가운데 한가지를 선별해 무대를 꾸민다.

2017년 올해 5월 20일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에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부산영산재보존회의 부산영산재가 소개되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영산재보존회는 이날 국운융창을 기원하며 영산재 의식에 맞춰 천수 바라춤과 나비춤을 선보였다. 부산영산재보존회는 1993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됐다.

부산영산재보존회 단체장 성림 스님은 "영산재는 사물놀이를 이용해 문화로 법문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앞으로도 불교문화포교로 계승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대선불교조계종 3대 종정 혜승 대종사

5월 22일 취임법회… 새 총무원장 현덕 스님



사단법인 대선불교조계종은 제3대 종정 및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5월 22일 대구MH컨벤션 5층 강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추대위원장 운암 대종사는 "3대 종정으로 추대된 혜승 대종사는 제방 선원에서 철저한 수행으로 6안거를 성만하셨다. 종도 간 소통을 통해 대승불교로서의 소명을 여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종정 혜승 대종사는 "세상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한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는 이웃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대종사는 경남 산청에서 1944년 출생, 경성대학교를 졸업했다. 1978년 4월 혜은당 법홍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으며, 1985년 옥련암 안거로 시작하여 용천사 등 6안거를 성만했다. (사)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및 종정 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총무원장으로는 현덕 스님이 취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불교 한마음대회 '소통과 포용'

5월 20일 천태종 동대사 잔디마당에서



2017 국태민안과 대구시민의 안녕을 위한 대구불교 한마음대회가 5월 20일 수성구 고모동에 위치한 천태종 동대사(주지 도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성문 스님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천태종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천태종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정효 정사, 관음종 대구경북 종무원장 법웅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함께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성문 스님은 "호국애민불교의 전통을 선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한 불제자들이 분열과 갈등을 소통과 포용으로 극복하고, 진정한 상생화합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교직원불자聯 20주년 특별대법회

부산 교직원 불자들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특별대법회'를 6월 10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법회는 하루에 두 차례로 나눠 오전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이, 오후에는 방장 지유 스님이 법문한다. 특별공연으로 찬불가 및 가야금연주도 마련된다.

김경희 회장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것은 일반 불자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다"며 "요즘 지식은 강조하지만 지혜와 인성 교육이 부족한 사례를 보게 된다. 불자 교사들의 학교 내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 생각한다. 앞으로 종립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불교의 긍정적 교육법을 적용하도록 노하우를 공유하고 젊은 교사들 영입을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조계종聯, 폭력 · 학대 없는 세상 발원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6월 7일 MOU 및 세미나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부산조계종聯)가 폭력과 학대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관련 세미나 및 MOU를 진행한다.

부산조계종聯은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MOU를 6월 7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체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조계종聯은 폭력과 학대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회복과 예방을 돕는 사회공헌, 참여봉사, 입법지원 및 정책제언 활동에 협력한다.

부산조계종聯은 이날 업무 협약을 기념하며 신의진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의 특별 초청 강연을 마련한다. 강의 주제는 '개인적 트라우마 이해를 통한 건강한 아동성장 프로젝트'이며 내용은 아동, 교사, 부모가 가정 및 사회에서 받은 부정적인 양육영향이 현재의 폭력성과 분노조절에 미치는 사례와 치유방안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조계종 스님과 소속 사찰 신도 및 학부모, 교사,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국회 사무처 소속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전문가인 신의진 前 국회의원을 비롯한 폭력학대피해 지원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2016년 5월에 설립한 단체다. 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이 가능한 전문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주 목적으로 활동한다. 신의진 회장은 현재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 부교수이며 2010년 서울시 여성상 대상, 2009년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고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저술은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느리게 기른다〉 〈느림보 학습법〉 〈아이의 인생은 초등학교에 달려있다〉 〈현명한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대화법〉 〈현명한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선택한다〉 등이 있다.

부산조계종聯 회장 심산 스님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 현실 공감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 대중포교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불교의 외연 확장 및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려 한다"며 "협약 체결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함께 동참할 것이다. 아울러 연중에 사회적 문제에 함께 고민하는 불교로 나아가기 위해 토크 콘서트도 약 3차례 계획하고 있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